

수형자의 성인애착과 우울의 관계: 사회적 유대감의 매개효과 검증*

이 지 혜 조 민 희 이 채 연 이 수 정 이 상 민†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는 수형자의 성인애착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 구치소에 수감된 130명의 수형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성인애착(ECR-R), 사회적 유대감(SCS), 우울(CES-D) 수준을 각각 측정하였다. 각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변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모형에 따라 순차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성인애착 차원과 우울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회피애착 차원, 불안애착 차원과 우울 수준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사회적 유대감은 회피애착 차원, 불안애착 차원, 우울 수준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그리고 사회적 유대감은 회피애착 차원과 우울 수준 사이에서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며, 불안애착 차원과 우울 수준 사이에서는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수형자의 우울과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갖는 사회적 유대감을 높이는 것의 중요성과 성인애착 하위 차원에 따라 차별화된 개입의 필요성을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형시설 차원에서 수형자 관련 제도개선 및 상담적 개입에 대한 합의와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기술하였다.

주요어 : 수형자, 성인애착, 사회적 유대감, 우울, 매개효과

* 본 연구자료 수집에 도움을 주신 이인열(법무부 성동구치소)님께 감사드립니다.

† 교신저자: 이상민,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136-7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Tel: 02-3290-2306, E-mail: leesang@korea.ac.kr

2012년 법무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교정시설 출소자 재복역률(2년 이내)은 2009년 18.2%, 2010년 18.5%, 2011년 19.5%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 내부 행정통계, 2012). 이러한 결과는 수형자들이 출소 후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예상하게 한다. 또한, 교정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감독에도 불구하고 전국 교정시설에서 폭행상해, 소란난동, 병사, 자살 등의 부적응 행동들이 발생하는데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사고 통계자료, 2012), 이러한 분노감 및 공격성과 관련된 수형자의 행동은 교정시설 내에서의 적응뿐만 아니라 수형자의 사회적 적응에도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민정희, 강해자, 2009). 교정시설 내 부적응 행동은 수형자의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나타나며(Link & Steuve, 1995) 특히, 자유가 제한되는 생활과 수형생활이 가져오는 박탈감, 범죄자라는 낙인을 견뎌내야 하는 것은 수형자들에게 극도의 스트레스원이 된다. 게다가 수형자들은 교정생활 중 슬픔이나 불안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때 이를 표현하기보다는 억압하고 드러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더욱 정신 건강상의 어려움에 노출된다(Toch & Adams, 2002). 수형자의 정신건강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인 집단과 수형자 집단에 MMPI를 실시한 결과, 수형자 집단은 T점수 70점을 넘어서는 비정상 비율이 MMPI의 모든 하위 임상척도에서 일반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이수정, 서진환, 이운호, 2000). 최근 들어 교정시설 내 수형자의 자살률은 과거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송한수, 이정애, 2009), 자살원인은 재판불만(19%), 죄책감(16%), 소외감(16%), 정신질환(16%), 자포자기(7%), 출소 후 생활비관(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법무부 정책뉴스, 2005). 이러한 결과는 교정 장면에서도 수형자들이 심리적 적응과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법무부 수용자 자살사고 예방대책, 2006). Boothby와 Clements(2000)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용시설에서 주로 발생하는 정신건강 문

제는 우울(80%), 분노(40%), 정신증(25%), 불안증(24%), 적응문제(20%), 성격장애(18%), 약물남용(17%), 성행동(14%), 충동통제(12%)로 우울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울은 자살사고가 있는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두드러진 특징이며(Rainer, 1984; Weissman, 1974), 자살사고의 예측요인으로 작용한다(Kandel, Ravis & Davies, 1991; Maris, 1981; Sherer, 1985).

미국정신의학회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 제4판(DSM-IV: Diagnosis and Statistical Manual for Mental Disorder-IV, 1994)에 의하면, 우울증은 “기분장애에 포함되는 증상으로써 우울한 정서 상태 뿐 아니라 복합적인 정신적·신체적 증상들 즉, 의욕상실, 불면증, 자살충동 및 자살시도 등에 수반하는 것으로 이들 중 5가지 이상이 2주 동안에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된다.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역할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주요 우울장애 유병률은 1986년에 3.37%이었으나 2011년에 약 2배 가량 높은 6.7%의 수치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보건복지부, 2011). 특히, 수형자는 일반인에 비해 우울수준이 높는데, 이와 관련하여 수형자와 일반인의 성격특성분석에서 각 집단에 PAI(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를 측정된 결과, 우울의 하위척도의 정서적 우울, 생리적 우울에서 수형자집단이 일반인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김세일, 이영순, 2008). 또한, Eystone, Howell(1994)의 연구에서 102명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우울증을 측정된 결과, 26명(25.5%)이 주요 우울증으로 진단되었으며, 32명은 우울증으로 진단되지는 않았지만 우울증상의 소견을 보였다. 이는 3~5%의 우울증 발병률을 가지는 일반인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Matsuura, Hashimoto, & Toichi(2008)의 연구결과에서도 약 50%의 수형자가 불안 및 우울증상을 나타냈다. 우울증은 치료와 회복 후에도, 재발과 관련된 위험요인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김영호, 2002) 수형자들의 우울 수준을 낮추고 이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울과 연관된 변인에 대한 탐색이

중요하다.

우울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초기 연구는 주로 개인의 역기능적인 인지과정에 주목하여 우울의 발생과정을 설명하였으나, 70년대를 지나면서 우울에 영향을 주는 인지적 요인뿐 아니라 대인 관계적 측면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김은정, 권정혜, 1998; Blatt & Homann, 1992; Bowlby, 1980; Gotlib & Hammen, 1992; West, Rose, & Sheldon, 1993).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대인 관계적 변인을 탐색한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고, 그 중 애착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Armsden, McCauley, Greenberg, Burke, & Mitchell, 1990; Gotlib & Hammen, 1992; Safran, 1990). 선행연구에 따르면, 불안정한 애착관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형성을 어렵게 하는 역기능적 인지의 발달과 관련되므로 우울 및 부정적 정서경험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tyron & Janoff-Bullman, 1997; Whisman & McGarvey, 1995). 특히,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들은 어릴 적에 부모의 상실이나 부모로부터의 방임 및 폭력을 어릴 적 애착관계에서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Renn, 2002), 이는 수형자의 불안정한 애착형성으로 인해 부정적 정서경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음을 예상하게 한다. 따라서 수형자가 형성한 애착은 그들의 우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변인이라 사료된다. 애착은 아이가 생애 초기에 중요한 타인에게 느끼는 강한 정서적 친밀감이다(Bowlby, 1973). 아이는 주로 주 양육자와 애착을 형성하며, 주 양육자와의 정서적 유대감의 질을 중심으로 스스로와 타인, 그리고 세상을 인식하는 관점에 대한 도식을 형성한다. 아이는 애착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이 자신을 거부할지, 애정을 가지고 보호해 줄 것인지에 대한 기대와, 자신이 돌봄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신념을 갖는다(Safran, 1990). 이러한 도식은 내적 작동모델(internal-working model)로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체계를 이룬다. 어릴 적에 형성된 내적 작동모델은 자신과 타인

에 대한 기본적 신념을 형성하기 때문에 성장해서도 성인기 이후의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발달 과정에서 건강한 애착을 형성하지 못할 경우,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힘들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Hazan & Shaver, 1987). 선행연구에서도 아이와 주 양육자와의 관계 양상은 초기 성인기에 형성하는 타인과의 대인관계에서 보이는 양상과 유사하다는 결과가 일관적으로 나타났다(김은정, 권정혜, 1998; 강진경, 2000; 장휘숙, 1998; Feeney & Noller, 1990).

성인애착(Adult Attachment)은 주 양육자와의 관계를 넘어서 특정한 한 사람 또는 소수와 느끼는 친밀한 감정적 유대로서 신체적, 심리적 안정감과 보호를 위해서 애착 대상과 가까운 접촉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개인의 안정적 경향성으로 정의된다(Bowlby, 1988; 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Hazan과 Shaver(1987)는 성인애착을 한 개인이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 또래, 연인으로 애착대상이 전환되는 과정의 결과이며, 부모와 아동의 애착관계와 비슷한 애착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서, 성인애착은 성인기에 이르러서 형성하는 중요한 타인과의 애착을 의미한다. 애착과 관련하여 초기 연구에서는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네 가지 유형구분(안정형, 두려움형, 거부형, 몰입형)을 사용하였으나, Brennan, Clark Shaver(1998)이 애착 척도들의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기존의 네 가지 유형구분을 불안, 회피의 두 차원 모형으로 구조화하였다. 이후, Nofle과 Shaver(2006)를 비롯한 최근의 연구들은 애착을 유형보다 차원으로 바라보는 모형이 더 타당하고, 설득력이 높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보였다(Fraley & Waller, 1998; Roisman, Holland, Fortuna, Fraley, Clausell & Clarke, 2007). 불안애착은 거절과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인정과 승인에 대한 과도한 욕구를 가진 애착양식으로 정의되며, 회피애착은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 가까움과 의존성에 대한 불편함, 자기 의존감에 대한 과도한

욕구로 나타나는 애착양식이다. 수형자를 대상으로 애착양상을 조사한 결과,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모두 높거나 회피애착이 높은 집단 특성을 나타냈다(Frodi, Dernevic, Sepa, Philipson & Bragesjö, 2001; Hansen, Waage, Eid, Johsen, & Hart, 2011). 회피애착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친밀감 및 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관련되므로 공감능력의 결여 및 폭력성과 공격성을 강화시키는 대표적인 위험요인이다(Finzi, Ram, Har-Even, Shnit, & Weizman, 2001). 또한 불안애착에서 나타나는 유기에 대한 두려움은 공격적이거나 파괴적인 행동(Lafontaine & Lussier, 2005)과 관련되기 때문에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불안정 애착이 범죄 등 수형자들이 저지르는 반사회적 행동과 높은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Hansen, Waage, Eid, Johsen, & Hart, 2011). 애착과 우울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울한 사람들은 애착에 있어 타인에 대한 불안 및 양가감정을 가지며(Roberts, Gotlib & Kasse, 1996), 애착관계 대상의 상실 및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회피성향을 보인다(Carnelley, Pietromonaco & Jaffe, 1994). 박은영(2004)의 연구 결과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 중, 긍정 정서에 대해서는 회피애착과 불안애착 모두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고, 부정 정서에 대해서는 불안애착과는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이 높을수록 긍정적 정서를 적게 느끼며, 불안애착이 강할수록 부정적 정서를 강하게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의 애착양식은 그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 안에서 친밀감을 느끼는 정도와도 관련이 높다(Lee, Draper, & Lee, 2008). 이와 관련된 개념으로 ‘사회적 유대감’은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서 나아가 지역 공동체 및 사회 전반의 더 큰 사회적 맥락의 대인관계에서도 친밀감과 편안함을 지각하는 정도를 지칭한다(Lee & Robbins, 1995; Lee & Robbins, 1998). 사회적 유대감은 Kohut의 자기심리학 이론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사람이 생애 초기부터 자신이 속한 사회

와 동일시하려고 하는 것과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안정감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경향성(Kohut, 1984)을 반영한다. 아직 신뢰, 기본적인 사회적 기술 등의 소속감을 이루는 요소들이 성립되지 않은 아동이 발달 초기에 자기상의 결핍을 경험하게 되면 이는 사람이 삶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데에 치명적인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Lee & Robbins, 1995). 한편, 중요한 타인과의 유대 관계를 경험한 아동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며 부모를 넘어서서 더 넓은 범위의 대인 관계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아동기는 물론 청소년기, 성인기를 비롯한 전 생애에 애착이 지속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많은 선행연구들은 애착을 사회적 지지와 관련하여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은 사회적 지지와 더 많은 연결망을 갖게 하고(김광은, 2004),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우울, 불안 및 스트레스 증상을 완화한다고 하였다(Lapsley, Rice, & FitzGerald, 1990). 아이는 안정된 애착관계 속에서 타인에 대한 친밀감과 필요시 타인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인식을 형성한다(Kahn & Antonucci, 1980). 이렇듯 애착은 사회적 지지와 소속감을 비롯한 전반적인 사회적 유대감의 기반이 되어, 이후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기능한다(Welbourne, Blanchard & Wadsworth, 2013).

선행연구 결과들을 통해 살펴본 애착과 사회적 유대감은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경험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 유대감은 자신의 욕구인식과 감정조절 능력과 관계가 있으며, 불안이나 우울을 견디는 힘의 원천이 된다(Kohut, 1984). 즉, 사회적 유대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을 신뢰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형성한다(Lee & Robbins, 1998). 또한, 사회적 유대감은 개인의 자아존중감과 긍정정서와 관련이 있으며, 스트레스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Lee & Robbins, 19985). 개인이 지각한 사회적 지

지와 우울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지지를 적게 지각하는 사람들은 대인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빈도가 높고, 이는 직접적으로 우울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akey & Cassidy, 1990).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때 중요한 타인들의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는 것이 심리적 고통을 완화해 준다는 연구 결과(Dunkley, Blankstein, Halsall, Williams, & Winkworth, 2000)와 사회적 유대감이 개인의 심리적 적응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전명임, 2009) 역시 사회적 지지의 지각이 우울을 감소시키는 데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사회적 지지 뿐 아니라 가족, 친구, 동료 등 전반적인 사회적 관계에 대한 친밀감과 소속감까지 포괄하는 사회적 유대감 역시 개인의 심리적 적응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전명임, 2009).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 수형자들은 교정시설 안팎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 이는 수형자들이 구금 기간 동안 가족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가족의 해체 또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수형자 가족은 배우자나 부모, 형제의 구금으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기도 하고 부부의 이혼, 부모와 자녀 간 관계 단절과 같은 위기에 노출된다. 설령, 수형기간 동안 가족관계가 유지되더라도 장기간의 분리 때문에 관계가 소원해져 수형자가 출소 후에도 가족에게서 소외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남상철, 신연희, 2002). 전영실과 신연희(2009)의 연구에서도 교정시설 밖의 가족요인이나 자녀관계는 수형자의 수형생활 중 심리적 고통과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금 기간 중 가족의 어려움은 소극적인 교화활동이나 규율 위반 등의 수형생활 부적응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시설 안에서도 수형자들은 교도관이나 다른 수형자들과의 관계로 어려움을 겪는다. 수형자들은 살인, 폭행, 사기 등의 다양한 범법자들과 동료로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겪는다. 또한, 수형자들은 동료 수형자 및 교도관에 대한 불신으로 교도소 내 생활에서 교도관이나 다른 수형자들을 포함한 타인과의 교류를 최소화하여 상호작용이 제한된 유리된 생활을 선택한다고 하였다(Leahy, 1998). 한편, 선행연구들은 가족 간 접촉 횟수가 높을수록 수형자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다른 수형자 및 교도관과도 긍정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김두섭, 전영실, 1995; 이영란, 2002; May, Sharma & Stewart, 2008), 친한 동료 수형자의 존재가 교도소 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며, 수형자의 사회적 관계가 시설 적응에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민수홍, 2009).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수형자의 우울에 성인애착이 영향을 미치며, 이를 사회적 유대감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의의가 있다고 가정하였다. 수형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집단으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이 다른 수형자 또는 교도관 등과 맺는 관계의 질이 적응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홍성열, 2007). 특히, 수형자들은 좁은 공간에 구속되어 항상 수형자 또는 교도관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소한 갈등도 피할 장소나 시간을 얻기 어렵다. 이러한 수형자들의 생활을 미루어 볼 때, 수형자들은 누구보다도 사회적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익히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높이는 것이 적응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형생활 중에 사회적 유대감을 높일 수 있다면, 이는 수형자들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함께 적응하고자 하는 동력의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형자의 성인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이들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볼 때, 불안정한 애착형성과 낮은 사회적 유대감이 수형자들의 높은 우울 수준과 연관성이 높음을 예상할 수 있다. 발달 초기 부모와의 애착이 충족되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도 주요 타인과의 애착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즉, 불안정한 애착은 사회적 유대감을 낮게 인식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적 유대감이 수행자의 우울을 설명하는 매개변인으로 확인되면 수행자를 대상으로 한 교정기관 차원의 개입 및 상담자로서의 접근방법에 좋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유대감은 환경적인 개입을 통하여 향상시킬 수 있는 가변적인 변인으로 수행자의 우울을 낮추는데에 기여하는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모형에서는 성인애착의 하위 차원인 불안애착, 회피애착을 각각 나누어 사회적 유대감과 우울간의 경로를 설정하였다. 성인애착의 하위 차원을 불안애착, 회피애착으로 구분하였던 Brennan, Clark과 Shaver(1988)는 불안애착은 중요 대상이 자신을 거부하거나 떠나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타인과 친밀해지거나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표상하는 회피애착과는 서로 독립적인 차원이라고 정의하였다. 성인애착과 관련된 국내연구 경향 역시 성인애착을 불안차원과 회피차원으로 나누어 심리사회적 변인들과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가 주를 이룬다(강수진, 최영희, 2011; 김병직, 오경자, 2009; 이정희, 심혜숙, 2007; 이주영, 최희철, 2012). 특히, 이정희, 심혜숙(2007)의 연구를 살펴보면, 불안애착은 우울과의 직접경로가 유의하였으나 회피애착의 경우는 우울과의 직접 경로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이 각각 우울과 맺는 관련성이 다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불안애착, 회피애착과 우울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사회적 유대감을 두어 그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연구 모형을 구축하였다.

연구가설 1. 수행자의 성인애착(불안차원, 회피차원), 사회적 유대감, 우울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 수행자의 성인애착(불안차원,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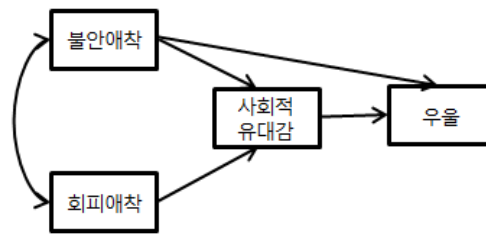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피차원)은 사회적 유대감을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1. 사회적 유대감은 불안애착과 우울을 부분 매개할 것이다.

연구가설 2-2. 사회적 유대감은 회피애착과 우울을 완전 매개할 것이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수도권 소재 S구치소의 수행자 1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질문지에 누락된 문항이 많거나 불성실하게 응답된 경우들을 제외 후, 최종적으로 124명의 설문 결과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에 참여한 수행자들의 성별은 남성 103명(83.1%), 여성 21명(16.9%)이고, 연령별 분포는 20대 미만 1명(0.8%), 20대 13명(10.5%), 30대 32명(25.8%), 40대 41명(33.1%), 50대 이상이 37명(29.8%)로 나타났다. 입소 경위는 강력범 20명(16.1%), 재산범 83명(66.9%), 과실범 12명(9.7%), 마약류사범 8명(6.5%), 공안관련 사범 1명(0.8%)이며, 범수는 초범 46명(37.1%), 재범 25명(20.2%), 3범 13명(10.5%), 4범 12명(9.7%), 5범 이상 28명(22.56%)으로 나타났다. 수행자들의 수용기간별 분포는 1년 미만 41명(33.1%), 1년 이상 2년 미만 37명(29.8%), 2년 이상 5년 미만 23명(18.5%), 5년 이상 10년 미만 14명(11.3%), 10년 이상 9명(7.3%)으로 나타났다. 설문은 교도

관의 입실 하에 집단으로 실시되었다. 교도관이 지시사항을 설명한 후에, 질문지를 실시 및 회수하였다. 조사 실시 전에 응답자의 조사 반응은 수형자의 처우와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고지하였다.

연구 도구

성인애착(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Scale-Revised: ECR-R)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하여 Fraley, Waller와 Brennan(2000)이 개발한 수정된 친밀관계경험척도(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Scale-Revised: ECR-R)를 김성현(2004)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ECR-R은 두 개의 독립된 차원, 즉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18문항씩 총 3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불안애착은 타인으로부터 거절당하거나 버림받는 것을 경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예: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만큼, 그들도 내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봐 걱정한다.'). 회피애착에는 타인과 가까워지거나 타인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다른 사람들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 편이다'). 문항은 7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며, 각 차원의 점수가 높을수록 그에 해당하는 특성이 높음을 나타내며, 점수가 낮을수록 안정애착의 특성을 보인다. 본 척도를 타당화한 김성현(2004)의 연구에서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차원의 Cronbach α 계수는 각각 .89와 .85로 나타났으며, 20-60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이주혜(2013)의 연구에서 Cronbach α 계수는 각각 .90와 .8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계수는 각각 .91, .88로 나타났다.

사회적 유대감(Social Connectedness Scale-Revised: SCS-R)

사회적 유대감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는 Lee와 Robins(1995)이 개발한 The Social Connectedness and the Social Assurance Scale을 전명임(2009)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개의 문항으로 사회적 유대감(예: '나는 사람들이 우호적이고 다가가기 쉽다고 본다.')을 측정하는 10문항, 사회적 비유대감(예: '나는 사람들과 거리감을 느낀다.')을 측정하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비유대감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역채점된다. 문항은 Likert식 6점 척도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유대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 등(2001)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계수는 .92로 나타났으며, 20-60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이은화(2010)의 연구에서 Cronbach α 계수는 .9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계수는 .87로 나타났다.

우울(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CES-D)

수형자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Rodloff (1977)의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를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번안·수정한 통합적 한국판 CES-D 척도를 사용하였다. CES-D는 지난 일주일 동안 우울을 경험한 빈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은 우울 감정(7문항)과 긍정적 감정(4문항), 신체 및 행동 둔화(7문항), 대인관계(2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고, 긍정적 감정을 측정하는 문항은 역채점 하였다. CES-D 하위요인들의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성인남성을 대상으로 한 허명륜(2012)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계수는 .88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81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들은 SPSS 18.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통계처리 및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우선, 성인애착 차원과

사회적 유대감 및 우울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다음으로, 사회적 유대감 변인이 예언변인인 성인애착 차원과 준거변인인 우울 수준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하기 위한 순차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먼저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모형에 의해 성인애착 차원유형을 불안과 회피 차원으로 나누어 성인애착의 각 하위차원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 변인의 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변인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수용기간, 입소경위, 범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난 후 (1) 예언변인인 성인애착 차원과 준거변인인 우울과의 관계, (2) 예언변인인 성인애착 차원과 매개변인인 사회적 유대감과의 관계, (3) 매개변인인 사회적 유대감과 준거변인인 우울과의 관계를 3단계로 차례대로 살펴본다, 사회적 유대감 변인이 매개변인의 기능을 하는지 검증하였다. 또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을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결국치는 SPSS에서 EM 알고리즘(Expectation-maximization algorithm method: EM algorithm)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결 과

사회적 유대감이 성인애착 하위차원과 우울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기 전에 우선적으로, 세 변인 간의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먼저, 성인 애착의 하위요인인 회피 애착과 불안애착은 우울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은 사회적 유대감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성인 애착의 하위차원들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회피애착이 불안애착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다음으로 사회적 유대감이 성인애착 차원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나타내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Baron과 Kenny(1986)에 따르면, 변인들 간에 매개적 관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예언변인이 준거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둘째로 예언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셋째로 매개변인이 준거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모든 변인들이 같은 방정식에 투입이 되었을 때, 예언변인이 준거변인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감소하거나 더 이상 유의미 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자들은 세 변인들이 이러한 매개적 관계의 조건들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매개효과 검증 단계에 따라 순차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유대감이 성인애착 차원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작용하는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첫째로, 성인애착의 하위차원들과 우울간의 순차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변인외의 외부요인을 통제하고자 회귀분석의 첫 단계에서 수용 기간, 입소경위, 범수를 공변

표 1. 성인애착 하위차원과 사회적 유대감 및 우울 간의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	1	2	3	4	M	SD
1. 회피애착	-				3.89	.86
2. 불안애착	.08	-			2.82	1.08
3. 사회적 유대감	-.51**	-.51**	-		3.96	.71
4. 우울	.25**	.54**	-.60**	-	2.14	.54

주. * $p < .05$, ** $p < .01$, *** $p < .001$

표 2. 성인애착의 각 하위차원과 사회적 유대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검증을 위한 순차적 중다회귀분석: 매개효과 검증

분석단계 및 예언변인	B	S.E.	β	R ²	t	F	준거변인
분석단계 1				.36***		13.18***	
수용 기간	-.02	.04	-.04		-.44		우울
입소경위	-.04	.06	-.05		-.66		
범수	.07	.03	.20		2.05*		
회피애착	.13	.05	.20		2.63*		
불안애착	.24	.04	.48		6.21***		
분석단계 2				.53***		26.93***	
수용기간	-.07	.04	-.13		-1.70		사회적 유대감
입소경위	-.04	.06	-.05		-.68		
범수	-.05	.04	-.11		-1.34		
회피애착	-.41	.05	-.50		-7.68***		
불안애착	-.27	.04	-.41		-6.22***		
분석단계 3				.45***		15.83***	
수용기간	-.04	.04	-.10		-1.14		우울
입소경위	-.05	.05	-.07		-.98		
범수	.05	.03	.15		1.66		
회피애착	-.01	.05	-.02		-.21		
불안애착	.15	.04	.30		3.62***		
사회적 유대감	-.32	.08	-.44		-4.36***		

주. * $p < .05$, ** $p < .01$, *** $p < .001$

인으로 투입하였다. 이와 같은 변수들을 투입한 결과, 범수만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공변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인애착의 하위차원들과 우울 간의 순차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피애착($\beta = .20, p < .05$)과 불안애착($\beta = .48, p < .001$)은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인애착 하위차원들과 우울은 공변인의 통제기 이루어진 후에도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는 결

과라 할 수 있다. 둘째로, 예언변인인 성인애착 차원과 매개변인인 사회적 유대감 간의 순차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인애착 하위차원인 회피($\beta = -.50, p < .001$) 및 불안애착($\beta = -.41, p < .001$) 모두 사회적 유대감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피 및 불안애착 성향이 높을수록 사회적 유대감이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 또한 매개효과 검증의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킨다. 셋째로, 각 성인애착 차원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성인애착을 예언변인으로, 우울을 준거변인으로 설정한 모형에

매개변인인 사회적 유대감을 추가하였을 때, 회피애착이 우울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하게 미치는 영향이 사라졌다($\beta=.20$ $p<.01 \rightarrow \beta=-.02$ $p=.835$) 반면에 추가된 사회적 유대감이 회피애착 보다 우울에 더 큰 영향($\beta=-.44$ $p<.001$)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사회적 유대감이 우울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과 더불어, 예언변인인 성인애착 차원이 준거 변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유대감을 통하여 현저하게 감소한다는 이러한 결과는 매개효과 검증의 세 번째 조건을 충족하므로 매개효과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성인애착 하위 차원 별로 하나씩 살펴보면, 회피애착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이 완전하게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Z=3.60$ 로 유의도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불안애착은 회피애착과 함께 우울을 예측하는 모형에서 사회적 유대감 변인을 추가하였을 때, 우울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유의하나 경로계수의 크기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beta=.48$, $p<.001 \rightarrow \beta=.30$, $p<.001$). 이러한 결과는 매개효과 검증의 세 번째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불안애착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이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Z=3.44$ 로 유의도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매개효과의 영향력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유의미한 경로계수를 통해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구체적으로, 회피애착이 사회적 유대감을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주었을 때 경로계수는 $.22(-.50 \times -.44)$ 였고, 회피애착이 사회적 유대감을 매개로 하지 않고 우울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경로계수 $-.02$ 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회피애착이 사회적 유대감을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불안애착의 경우, 사회적 유대감을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주는 경로계수는 $.18(-.41 \ti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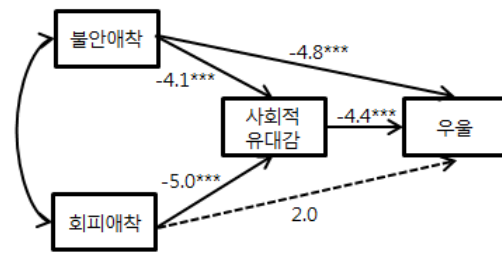


그림 2. 최종 결과

$-.44$)였고, 불안애착이 사회적 유대감을 매개로 하지 않고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로계수는 $.30$ 이었다. 이를 통해 불안애착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유대감을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위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회피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써 사회적 유대감은 전체 회피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88% ($.22 / .25$)의 변량을 설명하고, 불안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는 33% ($.18 / .54$)의 변량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들을 밝히고자, 우울과 성인애착, 사회적 유대감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특히, 수형자의 성인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매개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 회피애착과 불안애착 모두 사회적 유대감과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우울과는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에 타인과 가까워지거나 타인을 의지하는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회피애착의 경향성을 지닌 수형자 일수록 높은 우울 수준을 보였다. 나아가 자신의 상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주변상황에 대해서 역기능적으로 인식하여 타인과

의 관계 맺기를 불안해하는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불안애착의 경향성을 지닌 수행자에게도 마찬가지로 높은 우울 수준이 나타났다. 이는 중요한 사람과의 대인관계에서 형성한 불안 및 회피 애착과 같은 불안정한 애착양식은 우울 증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를 입증하는 결과이다(김은정, 권정혜, 1998; Hankin, Kassel, & Abela, 2005).

또한 성인애착과 사회적 유대감의 관계를 살펴보면, 수행자가 맺는 애착양식에 회피나 불안의 성격이 클수록 자신을 다른 사람과 단절된 외로운 사람이라고 지각하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불안, 회피 차원의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수행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외되거나 고립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유대감이 낮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어려워하는데 특히, 친밀한 관계를 이루거나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한다는 기존 연구(Lee, Draper & Lee, 2001; Rook, 1984)와 일관적인 결과이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불안 또는 회피애착을 보이는 수행자들은 높은 우울 수준 및 자살사고 등의 심리적 부적응을 겪거나 낮은 사회적 유대감을 지닐 가능성이 높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수행자의 우울과 관련한 교정시설 관계자들의 개입에 있어 수행자들의 타인과의 관계맺음이 어떠한지 살피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나아가 수행자의 성인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에서 각각 다른 매개 양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피애착이 우울과 맺는 관계에 사회적 유대감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하였을 때, 회피애착이 우울을 직접 예측하는 회귀계수의 방향이 음수로 변하며 그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 집단에서 회피애착과 우울간의 직접적 관계가 미미하게 나타났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안하얀,

서영석, 2010; 조화진, 서영석, 2010). 두 연구에서도 모두 다른 매개변인을 투입한 상태에서 회피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알아보았을 때 경로의 계수가 음수이며 적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자에게 있어 타인과 가까워지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이러한 회피애착의 속성은 수행자가 사회적으로 더 고립되게 하고(신지옥, 2006), 수행생활 및 사회생활 적용에 방해가 된다. 더불어 이러한 사회적 고립이 결과적으로 수행자가 우울을 겪는 것과 관련되므로 회피애착과 우울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완전 매개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불안애착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하면, 매개변인 투입 전에 비해 불안애착이 우울을 설명하는 변량이 감소하지만 여전히 불안애착의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분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지연, 임성문(2006)의 선행연구에서 매개변인 투입 후에도 불안애착과 우울과의 관련성이 유의하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불안애착이 회피애착에 비해 우울과 공유하는 자체변량이 크므로 사회적 유대감이 불안애착과 우울과의 관계에서는 매개변수로서의 비중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높은 불안애착을 보이는 사람들이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하며 스스로의 대처능력을 믿지 못한다는 것(김성현, 2004)과 과도하게 집착하는 의존적인 대인관계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는(박영주, 2005) 선행연구와 함께 애착대상에게 반복적으로 확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정정서(Shaver, Schachner, & Mikulincer, 2005)와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즉, 불안애착이 높은 사람의 우울은 사회적 유대감의 부재로 인한 효과 뿐 아니라 불안애착의 본질적인 측면인 취약한 자아상, 과한 의존과 승인욕구로 인한 부정정서로도 발생할 수 있기에 부분적으로만 매개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애착차원에 따른 사

회적 유대감의 매개양상의 차이는 수형자들이 우울해지는 경위를 애착양식의 특성에 따라 다각도에서 이해해야 함을 시사한다. 회피애착이 높은 수형자들은 고립된 수형생활의 상황적 특성과 함께 접촉을 거부하고 스스로 타인과 멀어지려 하는 성향이 사회적 유대감의 저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사회적 유대감의 저하는 우울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유발한다. 한편, 불안애착이 높은 수형자들은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고 타인과 연결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회적 유대감의 저하를 덜 경험한다. 그러나 대인관계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개인의 자존감을 손상시키고 무력감을 조장하여 수형생활 중 타인과의 관계가 유지된다 하여도 우울을 겪게 한다. 따라서 수형자의 애착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상담적 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본 연구에서 범수도 우울과 관련된 유의미한 공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재범을 저지른 수형자들이 초범인 수형자에 비해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를 더 빈번하게 경험한다는 정유희와 안창일(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심리적 고통과 재범과의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고하였던 Gendreau, Little과 Goggin(1996)의 연구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즉, 재범여부는 수형자의 성인애착 특성이나 수형자가 사회적 유대감을 지각하는 정도와는 별도로 수형자의 우울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인이므로 수형자의 우울 수준을 평가할 때에 먼저 고려해야 할 변인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수형자의 우울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적 유대감을 높이는 다각적인 개입이 실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수형자들은 억지로 자신이 맺던 사회적 관계들로부터 분리된 낯선 곳에서 수형생활을 하므로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서 더 취약하다. 또한, 수형자들은 교정 시설 내에서 수용자 간에 서로 친밀해지는 것을 꺼리는 한편, 가족 등 사회관계가 단절될 것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겪기 때

문에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환경이 우울을 직접적으로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수형자들이 교정 시설 내에서도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고, 관계에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개입이 더욱 요구된다. 이는 사회적 유대감과 우울의 부적인 관계를 보고한 여러 선행연구들(전명임, 2009; 정인철, 2012)에 의해서도 지지되는 결과이기도 하며, 매개변인으로써 사회적 유대감이 성인애착이 낮은 수형자에 대한 개입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변인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 수형자들이 교정시설 내에서 다른 수형자들과 협동 작업(예: 합창 및 합주, 단체 운동경기, 공동작품 완성)을 하면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상황이나 해당 교도관과의 소통을 높여서 교정시설 내 구성원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출소 후 수형자들의 사회적 지원이 되어줄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 등의 면회와 사회적응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귀휴제도, 접견교통권 활성화를 통해 수형자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속감과 친밀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교정본부에서는 1999년부터 가족 만남의 집을 운영하여 수형자들이 1박 2일 동안 가족과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가족접견 장소변경 신청제도를 시행하여 접견장소를 유연하게 변경함으로써 수형자와 가족의 만남을 독려하고 있다. 한편, 가족이나 친구 등의 지지체계와 자주 접견하기 어려운 장애물로 거리문제와 경비문제가 제기된다(전영실, 신연희, 2009).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면회인의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는 화상접견에 대한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각 교도소 내에서 이와 같은 제도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와 함께 수형자의 가족이 수형자에게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서신을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서신접견 절차를 더욱 간편화 하고 수형자의 근황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이 또한 수

형자와 가족간, 친구간의 사회적 유대감을 활성화 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성인애착의 두 가지 하위차원 회피애착, 불안애착은 직간접적으로 우울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면접을 통한 수행자의 애착 차원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상황에 따라 상담 장면에서의 개입방법을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회피애착 경향이 높은 우울한 내담자들에게는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성, 유대관계를 높이는 방법의 집중적인 개입이 우울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상담자와의 관계형성을 통해 긍정적인 관계경험과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가 우울을 낮추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한편, 회피애착이 높은 내담자는 고통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는 애착대상의 부재 또는 무반응을 반복적으로 겪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는 방법을 배웠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은 정서적인 고통을 겪을 때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견디는 모습을 보인다(Mikulincer, Shaver, & Pereg, 2003). 이러한 내담자들은 타인과의 긴밀한 관계를 꺼리고 먼저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담 장면에서 잘 나타나지 않거나 상담에 몰입하지 못할 수 있으며(박해송, 1999; 유영란, 이지연, 2006) 우울로 인한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어도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고 고립된 생활양식을 자처할 가능성도 높다(Vogel & Wei, 2005). 이를 고려하여 상담자는 회피애착이 높은 내담자를 대할 때 작업동맹 형성에 대한 인내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천천히 관계를 쌓아나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다가가야 할 것이다. 관계형성을 위해서 상담자가 급작스럽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은 회피애착이 높은 내담자들에게 침입적으로 느껴지거나 그들에게 부담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담자는 회피애착이 높은 내담자를 대할 때에 부정적인 측면과

부족함으로 인해 상담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재차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 부정적응에 초점을 두는 상담보다는 내담자의 장점과 성공적 관계경험을 탐색하며 타인과의 유대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방식의 해결중심적 접근이 더 적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해결중심적 접근은 내담자의 긍정적인 측면과 성공경험을 강조하여 내담자의 저항을 줄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수행자들에게 책임감을 기르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교정 장면에서 재범과 프로그램 조기종결을 반복하는 수행자에게 유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Lee, Uken, & Sebold, 2009, 2011). 또한 이들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경험과 생각을 부인하며 상담 장면에서도 주지화를 사용하여 정서 접촉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Alexander & Anderson, 1994). 이와 함께 상담자가 회피적이거나 거부적인 내담자에게는 더 인지적이거나 초연해진다는 선행연구(Shapiro, Hardy, Aldridge, Davidson, Rowe, & Reilly, 1999; Rubino, Barker, Roth & Fearon, 2000)를 고려해 본다면 상담 장면이 자칫 인지적인 교류에서만 머무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불안애착 경향이 높은 내담자의 경우, 회피애착 경향이 있는 내담자에 비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더 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내담자들은 전문적 도움추구의도가 높기 때문에 상담자와의 관계형성에 순응적일 수 있다. 불안애착을 보이는 내담자의 경우, 어떤 애착유형의 상담자를 만나도 어느 정도의 긍정적 유대를 맺는 것으로 지각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양정연, 권경인, 2012). 한편, 불안애착의 경향이 클수록 문제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심리적 고통에 몰두하거나(Shaver & Mikulincer, 2002), 고통의 정도를 과장하여 상담자의 의존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문형춘, 2007, 유영란, 이지연, 2006).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방향을 지시하거나 내담자의 욕구를 대신 해결해 주고자 하는 역전이를 경계하도록 내담자와의 관계역동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제

기된다(양정연, 권경인, 2012). 또한, 상담자가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과대지각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어려움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잘 버텨주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타인의 관심과 인정에 과도하게 매달리고 애정을 독차지하고자 하는 불안애착이 높은 내담자들의 관계특성은 타인으로부터 거절당하는 상황을 유발한다. 이는 내담자의 사회적 유대감을 낮추고, 부정적인 자아개념과 관계에 대한 집착을 강화하여 우울증상을 심화시킨다(Feeney & Collins, 2001). 따라서 불안애착 경향이 높은 내담자들에게는 불안애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의존적인 대인관계나 부정적인 자아개념에 대한 자각을 높이는 상담적 개입을 통해 사회적 유대감을 증진시켜 우울감을 낮추는 방안이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애착대상이 떠나갈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어나는 인지 왜곡을 탐색하고, 점진적 훈련으로 부적응적 대인관계 양식을 변화시키는 인지적 접근은 여러 연구(최용용, 김춘경, 이수연, 2005; Ravitz, Maunder, & McBride, 2008)에서 효과성이 검증된 바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므로 연구에 참여한 수형자들이 설문에 방어적으로 응답하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식으로 반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질문지의 응답에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어 연구 참여자가 허위로 보고하거나 실제보다 축소 혹은 과장 보고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해당 연구 참여자를 감독하는 교도관에 의한 보고 등의 제 3자의 객관적인 관찰에 의한 보고 또는 혈중 Cortisol 농도의 상승(Carroll, Curtis, Davies, Mendels, & Sugarman, 1976) 등 우울로 나타나는 신체적인 증상의 수준을 함께 조사하여 자료 수집을 함으로써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는 서울 소재의 한 구치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결

과를 모든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들에게까지 일반화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여러 교정시설의 수형자들을 중심으로 결과를 살펴보고 다른 교정시설의 수형자들에게도 본 연구결과가 재현되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인구통계학적 구성에 있어서도 남성 103명(83.1%), 여성 21명(16.9%)으로 남성 수형자에 편중된 표집 때문에 여성 수형자의 반응경향이 잘 반영되지 않은 것이 한계로 작용한다. 그렇지만 2012년 기준으로 전체 수형자에서 여성수형자의 비율이 5%라는 것(법무연수원, 2012)을 감안하면, 전체 수형자의 반응양상을 대표하는 데에는 보다 적합한 표집 비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후 연구에서는 여성 수형자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진행하여 남성과 여성 수형자 모두에게 본 연구결과와 일관적인 결과가 나타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추가적으로, 사회적 유대감이 특히 수형자 집단에 있어서 우울을 감소시키는 데에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반인 집단과 수형자 집단을 비교하여 사회적 유대감이 수형자의 우울수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횡단연구이면서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연구이기 때문에 인과적 추론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즉, 본 연구모형과는 반대로 높은 우울 수준이 수형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각하는 사회적 유대감과 성인애착 수준을 낮게 평가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추후 연구에서 종단적 연구, 즉 성인애착, 사회적 유대감, 그리고 우울을 장기간에 걸쳐 측정하여 성인애착 또는 사회적 유대감의 변화에 따른 우울 수준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수진, 최영희 (2011). 성인애착이 대인관계능력

- 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 양식과 사회불안을 매개변인으로. *인간발달연구*, 18(3), 53-68.
- 강진경 (2000). 아동기의 부모에 대한 내적 표상과 성인기의 낭만적 애착.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광은 (2004). 성인 애착 유형과 요인에 따른 성격 특성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53-69.
- 김두섭, 전영실 (1995). 여자수형자의 수형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병직, 오경자 (2009). 대학생의 성인 애착과 우울 사이를 매개하는 변인의 탐색: 반추와 정서 억제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3), 357-375.
- 김성현 (2004). 친밀 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확장적 요인 분석과 문항 반응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세일, 이영순 (2008). 교도소 수형자와 일반인간의 성격특성분석 - PAI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학회지*, 7(1), 21-37.
- 김영호 (2002). 기질성격검사(TCI)와 우울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화 (2010). 남성 수형자의 아동기 외상과 자살사고의 관계: 우울의 중재효과.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 권정혜 (1998). 우울증상과 관련된 대인관계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1), 105-199.
- 남상철, 신연희 (2002). 재소자의 가족관계 강화를 위한 교정행정의 방향. *교정연구*, 15, 99-124.
- 민수홍 (2009). 중간처우의 집: 미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교정연구*, 43, 7-36.
- 민정희, 강혜자 (2009). 교도소 수형자의 심리적 요인과 시설 내 적응태도. *교정연구*, 45, 253-277.
- 문형춘 (2007). 성인애착 특성과 상담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609-634.
- 박영주 (2005). 애착의 회피-불안 차원에 따른 우울양식과 대인관계문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은영 (2004). 여고생의 애착이 사회적 지지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송 (1999). 내담자의 대인애착 특성과 상담자에 대한 신뢰감이 초기 조기종결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법무부 (2005). 정책뉴스. 과천: 법무부
- 법무부 (2006). 수용자 자살사고 예방대책. 과천: 법무부
- 법무부 (2012). 교정본부 교정사고 통계자료. 과천: 법무부
- 법무부 (2012). 법무부 교정본부 내부행정자료. 과천: 법무부
- 법무연수원 (2012). 2012년 범죄백서. 과천: 법무부
- 보건복지부 (2011). 지역사회 역할조사에서 주요우울장애 유병율. 세종: 보건복지부
- 송한수, 이정애 (2009). 수형자 자살 위험 선별척도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1), 223-243.
- 신지옥 (2006). 애착, 정서, 그리고 대인관계 유능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경로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하얀, 서영석 (2010). Young의 단절 및 거절 도식, 부정적 기분, 대인관계문제: 정서적 과민반응과 정서적 단절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4), 847-865.
- 양정연, 권경인 (2012). 상담자, 내담자 애착유형 조합에 따른 상담관계: 작업동맹, 역전이 행동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3(2), 891-915.
- 유영란, 이지연. (2006). 성인 애착과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심리적 불편감, 지각된 사회적 지지, 자기은폐의 매개효과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2), 441-460.
- 이영란 (2002). 여성범죄인의 수형생활 적응과정.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화 (2010). 분노반추와 용서,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사회적 유대감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 석사학위논문.
- 이수정, 서진환, 이윤호 (2000). MMPI점수로 본 교도소 수형자들의 정신건강문제 실태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9(2), 43-62.
- 이주영, 최희철 (2012) 대학생의 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3(2), 819-838.
- 이주혜 (2013). 성인애착과 대인관계능력간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희, 심혜숙 (2007). 성인애착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공변량 구조분석. 상담학연구, 8(3), 899-915.
- 이지연, 임성문 (2006). 성인애착과 대학생의 우울과의 관계: 낙관성과 비관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7(4), 969-984.
- 장휘숙 (1998). 애착과 정신증의 관계에서 자기관련적 변인의 중재역할.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1(1), 110-121.
-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전영실, 신연희 (2009). 수용자 가족방문 실태 및 그 효과: 성별비교를 중심으로. 교정연구, 45, 279-303.
- 전명임 (2009).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우울,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유희, 안창일 (2004). 성별, 재범여부, 범죄유형에 따른 수형자의 NEO-PI-R 반응.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3), 725-740.
- 정인철 (2012).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격려, 자기낙담, 사회적 유대감의 매개효과.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화진, 서영석 (2010). 부모애착, 분리-개별화, 성인애착, 대학생활적응,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385-411.
- 최응용, 김춘경, 이수연 (2005). 인지행동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살 및 우울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6(1), 75-91.
- 허명륜 (2012). 남성의 갱년기 증상과 우울, 건강증진 행위, 주관적 연령의 관계. 을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성열 (2007). 수형자의 교도소 생활에 대한 적용. 교정연구, 35, 99-115.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 S.,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Alexander, P. C., & Anderson, C. L. (1994). An attachment approach to psychotherapy with the incest survivor.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31(4), 665-675.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DSM-IV)*. 4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rmsden, G. C., McCauley, E., Greenberg, M. T., Burke, P. M., & Mitchell, J. R. (1990).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 early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8(6), 683-697.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2), 226-244.
- Bernet, C. Z., & Stein, M. B. (1999). Relationship of childhood maltreatment to the onset and course of major depression in adulthood. *Depression and Anxiety*, 9(4), 169-174.
- Blatt, S. J., & Homann, E. (1992). Parent-child interaction in the etiology of depress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12, 47-91.

- Boothby, J. K., & Clements, C. B. (2000). A national survey of correctional psychologist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7(6), 716-732.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Separation*.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8). The role of attachment in personality development. In *A secure base: Clinical applications of attachment theory*. London: Routledge.
- Brennan, K. A., & Shaver, P. R. (1995). Dimensions of adult attachment, affect regulation, and romantic relationship functioning.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 267-283.
- Briere, J. (1996). A self trauma model for treating adult survivors of severe child abuse. In J. Briere, L. Berliner, J. A. Bulkley, C. Jenny, T. Reid (Eds.), *The APSAC handbook on child maltreatment*(pp. 140-157).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 Carnelley, K. B., Pietromonaco, P. R., & Jaffe, K. (1994). Depression, working models of others, and relationship functio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127-140.
- Carroll, B. J., Curtis, G. C., Davies, B. M., Mendels, J., & Sugerma, A. A. (1976). Urinary free cortisol excretion in depression. *Psychological Medicine* 6, 43-50.
- Dunkley, D. M., Blankstein, K. R., Halsall, J., Williams, M., & Winkworth, G. (2000). The relation between perfectionism and distress: Hassles, Coping,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as mediators and moderat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4), 437-453.
- Eyestone, L. L., & Howell, R. J. (1994). An epidemiological study of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nd major depression in a male prison popul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Psychiatry and the Law Online*, 22(2), 181-193.
- Feeney, J. A., & Noller, P. (1990). Attachment style as a predictor of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281-291.
- Finzi, R., Ram, A., Har-Even, D., Shnit, D., & Weizman, A. (2001). Attachment styles and aggression in physically abused and neglected childre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6), 769-786.
- Fraley, R. C., & Waller, N. G. (1998). Adult attachment patterns: A test of the typological model.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 77-114). NY: Guilford Press.
- Fraley, R. C., Waller, N. G., & Brennan, K. A. (2000).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3), 350-365.
- Feeney, B. C., & Collins, N. L. (2001). Predictors of caregiving in adult intimate relationships: an attachment theoretical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6), 972-994.
- Frodi, A., Dernevik, M., Sepa, A., Philipson, J., & Bragesjö, M. (2001). Current attachment representations of incarcerated offenders varying in degree of psychopathy.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3(3), 269-283.
- Gendreau, P., Little, T., & Goggin, C. (1996). A meta analysis of the predictors of adult offender recidivism: What works!. *Criminology*, 34(4), 575-608.
- Gotlib, I. H. (1992). Interpersonal and cognitive aspects of depression.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 149-154.
- Gotlib, I. H., & Hammen, C. L. (1992). *Psychological aspects of depression: Toward a cognitive-interpersonal integration*. John Wiley & Sons.

- Hankin, B. L., Kassel, J. D., & Abela, J. R. (2005). Adult attachment dimensions and specificity of emotional distress symptoms: Prospective investigations of cognitive risk and interpersonal stress generation as mediating mechanism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1), 136-151.
- Hansen, A. L., Waage, L., Eid, J., Johnsen, B. H., & Hart, S.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personality and antisocial tendencies in a prison sample: A pilot study.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52(3), 268-276.
- Hazan C.,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 Hirano, S., Sato, T., Narita, T., Kusunoki, K., Ozaki, N., Kimura, S., Takahashi, T., Sakado, K., & Uehara, T. (2002). Evaluating the state dependency of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dimensions in patients with major depression: A methodological contributio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69(1-3), 31-38.
- Kahn, R. L., & Autonucci, T. (1980). Convoys over the Life - Course Attachment Roles and Social Support. In P.B. Baltes, & S.O. Braim (Eds.), *Life-Span-Development and Behavior*. 3,(pp. 254-286). Boston: Lexington Press.
- Kandel., D, Ravis, V, & Davies, M. (1991).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ce: Depression, Substance abuse and Other risk fact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2), 289-310.
- Kohut, H. (1984). *How does analysis cur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Lafontaine, M. F., & Lussier, Y. (2005). Does anger towards the partner mediate and moderate the link between romantic attachment and intimate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20(6), 349-361.
- Lakey, B. & Cassady, P. B. (1990). Cognitive processes in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2), 337-343.
- Lapsley, D. K., Rice, K. G., & FitzGerald, D. P. (1990). Adolescent Attachment, Identity, and Adjustment to College: Implications for the Continuity of Adaptation Hypothesi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68(5), 561-565.
- Leahy, J. P. (1998). Coping strategies of prisoners in a maximum security prison: minimal, optimal and utilitarians, *Social Thought & Research*, 21, 279-290.
- Lee, M. Y., Uken, A., & Sebold, J. (2009). Accountability for change: Solution-focused treatment for domestic violence offenders. In P. Lehmann & C.A. Simmons (Eds), *Strengths-based batterer intervention: A new paradigm in ending family violence* (pp. 55-86). New York: Springer.
- Lee, M. Y., Uken, A., & Sebold, J. (2011). Solution-focused model with court-mandated domestic violence offenders. In C. Franklin, T. S. Trepper, W. J. Gingerich, & E. E. Mccollum (Eds), *Solution-focused brief therapy: A handbook of evidence-based practice* (pp. 165-182). New York: Oxford.
- Lee, R. M., Draper, M., & Lee, S. (2001). Social Connectedness, Dysfunctional Interpersonal Behavior, and Psychological Distress: Testing a Mediator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3), 310-318.
- Lee, R. M., & Robbins, S. B. (1995). Measuring Belongingness: The Social Connectedness and the Social Assurance Scal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2), 232-241.
- Lee, R. M., & Robbins, S. B.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nnectedness and anxiety, self-esteem, and social ident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3), 338-345.

- Link, B. & Steuve, A. (1995). Evidence bearing on mental illness as a possible cause of violent behavior. *Epidemiology Review*, 17(1), 172-181.
- Mikulincer, M., Shaver, P. R., & Pereg, D. (2003). Attachment theory and affect regulation: The dynamics, development, and cognitive consequences of attachment-related strategies. *Motivation and emotion*, 27(2), 77-102.
- Maris, R. W. (1981). *Pathways to suicide: A survey of self-destructive behaviors*. Baltimore, MD: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 May, C., Sharma, N & Stewart, D. (2008). *Factors linked to reoffending: a one-year follow-up of prisoners who took part in the resettlement surveys 2001, 2003 & 2004*. London: Ministry of Justice
- Nofle, E. E. & Shaver, P. R. (2006). Attachment dimensions and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Associations and comparative ability to predict relationship qualit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0, 179-208.
- Rainer, J. D. (1984). Genetic factors in depression and suicide.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38(3), 329-340.
- Ravitz, P., Maunder, R., & McBride, C. (2008). Attachment, contemporary interpersonal theory and IPT: An integration of theoretical, clinical, and empirical perspectives. *Journal of Contemporary Psychotherapy*, 38(1), 11-21.
- Roberts, J. E., Gotlib, I. H., & Kassel, J. D. (1996). Adult attachment security and symptoms of depression: the mediating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low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10-320.
- Ro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Roisman, G. I., Holland, A., Fortuna, K., Fraley, R. C., Clausell, E., & Clarke, A. (2007).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and self-reports of attachment style: an empirical rapproch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4), 678-697.
- Rook, K. S. (1984). Promoting social bonding: Strategies for helping the lonely and socially isolated. *American Psychologist*, 39, 1389-1407.
- Rubino, G., Barker, C., Roth, T., & Fearon, P. (2000). Therapist empathy and depth of interpretation in response to potential alliance ruptures: The role of therapist and patient attachment styles. *Psychotherapy Research*, 10(4), 408-420.
- Safran, D. (1990). Towards a refinement of cognitive therapy in light of interpersonal theory: I. Theory. *Clinical Psychology Review*, 10(1), 87-105.
- Shaver, P. R., & Mikulincer, M. (2002). Attachment-related psychodynamics.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4(2), 133-161.
- Shaver, P. R., Schachner, D. A., & Mikulincer, M. (2005). Attachment style, excessive reassurance seeking, relationship processes, and dep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3), 343-359.
- Shapiro, D., Hardy, G., Aldridge, J., Davidson, C., Rowe, C., & Reilly, S. (1999). Therapist responsiveness to client attachment styles and issues observed in client-identified significant events in psychodynamic-interpersonal psychotherapy. *Psychotherapy Research*, 9(1), 36-53.
- Sherer, M. (1985).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college students. *Psychological Reports*, 57(3, Pt 2), 1061-1062.
- Styron, T., & Janoff-Bulman, R. (1997). Childhood attachment and abuse: Long-term effects on adult attachment, depression, and conflict resolution. *Child abuse & neglect*, 21(10), 1015-1023.
- Stutman, G., & Brady-Amoon, P. (2011). Supporting Dependant Relatives of Undocumented

- Immigrants through Psychological Hardship Evaluations. *Journal of Forensic Psychology Practice*, 11(5), 369-390.
- Terr, L. (2003). Childhood traumas: an outline and overview.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 322-333.
- Toch, H., & Adams, K. (2002). *Acting out: Maladaptive behavior in confinement*.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Vogel, D. L., & Wei, M. (2005). Adult Attachment and Help-Seeking Intent: The Mediating Roles of Psychological Di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3), 347-357.
- Weissman, M. M. (1974). The epidemiology of suicide attempts, 1960 to 1971.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0(6), 737-746.
- Whisman, M. A., & McGarvey, A. L. (1995). Attachment, depressotypic cognitions, and dysphoria.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9(6), 633-650.
- Welbourne, J. L., Blanchard, A. L., & Wadsworth, M. B. (2013). Motivations in virtual health communities and their relationship to community, connectedness and stres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9(1), 129-139.
- West, M. L., Rose, M. S., & Sheldon, A. (1993). Anxious attachment as a determinant of adult psychopathology.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orders*, 181, 422-427.
- Young, E. A., Abelson, J. L., Curtis, G. C., & Nesse, R. M. (1997). Childhood adversity and vulnerability to mood and anxiety disorders. *Depression and Anxiety*, 5(2), 66-72.

1 차원고접수 : 2013. 09. 15.

수정원고접수 : 2014. 07. 15.

최종게재결정 : 2014. 07. 16.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Depression in Inmates: The Mediation Effect of Social Connectedness

Ji Hae Lee Minhee Cho Chae Yeon Lee Su Jung Lee Sang Min Lee

Korea University Department of Education

This study verified the role of social connectedness as a mediator to better understand the link between adult attachment dimension and depression among inmates. Adult attachment dimension, social connectedness, and depression of 130 inmates in a detention center in Seoul were measured. The researchers conducted correlational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recommended by Baron & Kenny(1986) to analyze the mediation effect. Avoidant adult attachment, anxious adult attachment, and depression were positively correlated while social connectedness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other three variables. Social connectedness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voidant adult attachment and depression. In contrast, social connectedness partially mediated the link between anxious adult attachment and depression. The main results emphasize social connectedness to deal with depression and call for differential intervention according to one's attachment dimension. Implication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counseling practice regarding inmates are discussed as well as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148 words).

Key words : Inmates, Adult Attachment, Social Connectedness, Depression, Mediation Effect